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2025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 개최

[정읍=하경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는 지난 23일 '2025년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열고, 기후변화와 수자원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정책과 농업용수 관리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는 지난 23일 '2025년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열고, 기후변화와 수자원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정책과 농업용수 관리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년 물관리 추진 현황 보고 △공사의 주요사업 소개 △수리시설 감시원의 역할 △농업용수 통합관리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특히 2022년 6월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정책 변화와 기상이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은 "앞으로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겠다"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하경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읍=하경민 기자